

노교수의 눈물

후배 능력 꿰뚫어 본 은사 향한 감사

1960년 8월에 나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목적지인 미국 남부의 애틀란타시 '에모리' 대학에 도착 한 당시만 해도 미국 남부 지방에는 동양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 전쟁이 있었던 뒤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동양 사람만 보면 그저 차이나 맨 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일 년 쯤 뒤 나는 콜럼비아 대학으로 전학을 했다. 느린 템포의 남부와는 달리 '뉴욕'이란 거대 도시 속에 있는 콜럼비아 대학은 활기찬 곳이었다. 도시 특유의 불친절 속에서 바빠 움직이는 학생들 틈에 끼여 지내면서 '입자 물리학'이란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당시의 콜럼비아 대학은 전성기였고, 23명의 물리학과 교수 가운데 11명이 당시 '노벨상'을 받았거나 그 뒤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배운 교수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성기의 콜럼비아 대학 물리학과를 만든 원동력은 라비(I. I. Rabi) 교수였다. 일찍이 원자핵의 모양을 알아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강한 개성의 소유자였다. 160cm 밖에 안 되는 작은 키에 유대인 특유의 큰 코를 가진 이 선생님은 만사에 자기 개성을 강하게 풍기는 그런 분이였다.

미국 학생들 대부분은 글씨 쓰는 것이 엉망이다. 라비 교수는 시험 문제지 첫 단에 '글씨를 제대로 못쓰면 프린트하라'고 크게 주의를 주곤 하였다. 못 알아보게 쓰지 말고 프린트하듯 정자로 또박또박 쓰라는 뜻의 라비 특유의 개성이 듬뿍 담긴 분명한 지시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어쨌든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름의 석학들을 직접 접하면서 나는 또 한번 '미국'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 당시 서른둘의 젊은 나이로 정교수이며, 스물아홉 때 벌써 노벨상을 받은 리(T. D.

Lee) 교수, 레이저의 원리를 개발한 Townes 교수, 독일인 특유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전자의 자기 능력을 알아낸 쿠시 교수 등 모두가 노벨상을 수상한 기라성 같은 석학들을 콜럼비아대학 물리학과에 끌고 온 것은 모두가 라비 교수의 힘이었다.

그 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내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의 원로 교수가 되기 몇 년 전, 미국의 부르크헤븐 국립연구소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 연구소에서 우연히 그 옛날 콜럼비아대학 시절 은사인 멜 슈발츠(Mel Schwartz) 교수를 만났다. 그와 함께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얼마 전 돌아가신 라비 교수를 화제에 올렸다. 슈발츠 교수는 라비 교수를 '그 늙은 영감(That old man)'이란 애칭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 당시 스물아홉의 조교수로 밤잠을 못 자며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네. 알다시피 계약제에 묶여 있던 조교수의 신세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품팔이 노동자와 같은 신세였지. 나는 내가 주도한 '두 종류의 증성미자' 실험을 마치고 그 늙은 영감을 비롯한 물리학과 의 원로 교수들 앞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네. 강연을 마치고 강단을 내려서니 그 영감이 손을 불쑥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멜 슈발츠! 자네는 오늘부터 계약직 조교수가 아니라 연구직 정교수가 되었네 (Mel You got your tenure).' 나는 한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서 서있었네. 그 늙은 영감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잊어버린 바보처럼 멍청하게 말일세."

훌륭한 업적을 알아보는 라비 교수가 꿰뚫어 본 것처럼 슈발츠 교수는 1988년에 '두 종류의 증성미자'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그 늙은 영감'의 그 때 그 고마움 때문에 이제는 일흔을 바라보는 노교수 슈발츠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나는 못 본 체했다. 그는 "서른도 채 되지 않은 애송이 후배를 알아주는 그 영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아마 자기의 눈물을 제자인 나에게 보여 주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가 떠난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앉아 있으면서 미국 유학 시절에 느끼지 못했던 미국을 느꼈다. 후배를 알아보고 이끌어 주는 선배가 있고 그 고마움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잊지 않는 후배가 있는 그런 나라는 정말 복 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현실이 어쩐지 서글퍼진다.

김제완 과학문화진흥회 회장